

# 자동차 사고성향의 수량화 분석과 성격특성의 비교

Comparing with Quantification Analysis of Car-Accident Traits and Personality Types

고 병 인\* · 임 현 교\*\*

\* 충북대학교 대학원 안전공학과 · \*\*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 ABSTRACT

본 연구는 다변량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자동차 사고성향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내고 그것이 심리적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학생집단, 일반인집단 그리고 운전기사집단의 성격적 특성과 자동차사고 경험 혹은 그 가능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KG 식 일반생활질문지에 의한 설문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고친화성향에 따라 2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수량화 분석에 의해서도 집단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과 운전자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 1. 서 론

인간의 소질적인 면을 나타내는 성격이나 태도가 불안전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중 1950 년부터 심장병환자들의 행동차이를 관찰한 결과 심장병환자들이 심장병 이외의 환자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행동양식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성격이론에 근거하여 산업안전과 행동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여 왔다. 만약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고 차별적인 안전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성격특성을 Type A 와 Type B 로 구분한 이론에 근거하여 피실험자들을 구분하고, 한편으로는 수량화 분석을 이용하여 같은 구

분이 가능한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안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 2. 이론배경

성격특성론의 Type A/B 이론은 심장학자인 Friedman과 Rosenman [1]에 의해 제기된 생리학적인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들은 심장병 환자들이 심장병 이외의 환자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특징적인 행동양식이 심장병 (Coronary Heart Disease)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Type A는 급격한 공격성과 적개심, 경쟁심, 높은 성취욕과 시간에 대한 강한 긴박감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Type B는 Type A가 표출되는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태평하고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와 같이 Type A/B 이론은 개인간의 여러 행동양식의 차이에 따라 Type A와 Type B로 분류되지만 성격특성을 구분하는 데에는 행동양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령, 경험 그리고 집단간의 특성 등 많은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즉 이러한 여러 현상이나 행동양식에 대한 측정치들을 동시에 분석하여 여러 변수의 관계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적용될 수 있는 기법이 다변량 분석 (Multivariate Analysis)이다. 그러나 다변량 분석의 대부분은 정량적인 값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정성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량화 분석 (Quantification Analysis)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성적 변수와 정성적·정량적 변수가 혼재된 데이터를 분석할 목적으로 1954년 Hayashi C. [2]에 의하여 개발된 기법으로, 이 기법은 주어진 많은 변수들로부터 현상을 예측하거나 유사집단을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격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간의 상호관계는 당연히 다변량 분석, 특히 수량화 분석에 의해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연구방법 및 결과

본 연구는 학생집단 ( $N=130$ ) 과 운전기사집단 ( $N=50$ ) 그리고 일반인집단 ( $N=46$ )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Type A/B 검사는 일본 KG (Kwansai Gakuin : 関西学院) 식 일상생활질문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5].

학생집단과 일반인집단 그리고 운전자집단 모두 KG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이 확인되어 Type A/B 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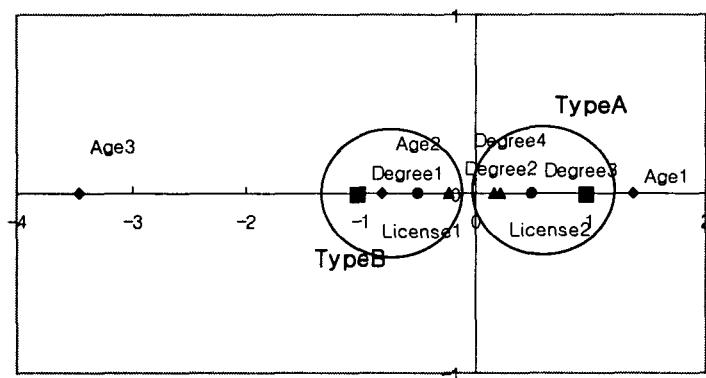
Table 3-1 는 KG 점수에 의해 Type A 와 Type B 로 구분된 학생집단을 수량화 2 류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량화값의 범위로 파악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가장 크게 성격특성 Type A/B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은 학년과 운전면허 소유여부의 순이었다.

**Table 3-1 Quantified data of students by Quantification Method II**

division		Quantified value	Range
Type	A	0.953	1.996
	B	-1.044	
Age	~20	1.369	4.828
	21 ~ 25	-0.804	
	26 ~ 30	-3.459	
Degree	1	-1.024	2.286
	2	-0.222	
	3	1.262	
	4	0.216	
Driver License	Yes	-0.503	1.002
	No	0.499	

또 Fig. 3-1 은 Table 3-1 에 의한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운전면허를 소유한 집단은 Type A 로 그리고 운전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집단은 Type B 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3, 4 학년은 Type A 에 해당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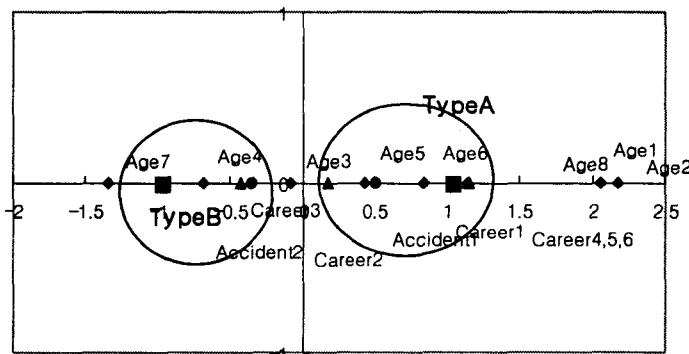
어 저학년에 비해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 : Type ◆ : Age ▲ : Career ● : Accident

**Fig. 3-1 Dispersion of students by Quantification Method II**

일반인집단에서도 학생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성격특성 Type A/B 구분 기준과 가장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또 Fig. 3-2 와 같이 사고를 경험한 그룹은 Type A 에, 또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그룹은 Type B 에 해당되어,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Type A 는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집단이라고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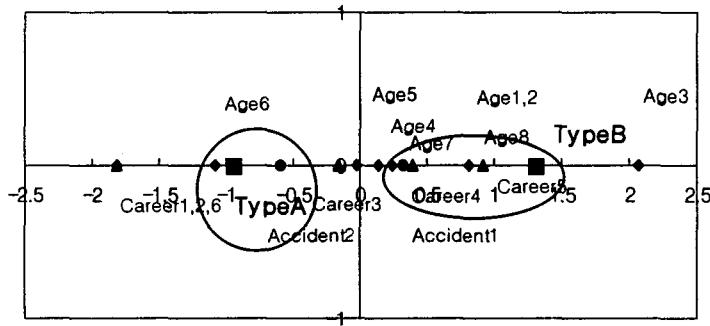


■ : Type ◆ : Age ▲ : Career ● : Accident

**Fig. 3-2 Dispersion of the general public by Quantification Method II**

운전기사집단을 대상으로 학생집단과 일반인집단의 분석과 같이 수량화 2 류를 이용하여 구분한 결과 연령이 성격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성격특성은 Fig. 3-3 과 같이 일반인의 그룹과 반대로 사고를 경험한 그룹은 Type B 에 또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그룹은 Type A 에 해당되어 Type A 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집단이라고 하는 기준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았다.

즉 버스운전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Tape A 인 사람이 Type B 인 사람보다 사고를 2 배 이상 낸다는 Evans [4] 의 결과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것은 택시업무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생각되는데 즉, 한국적인 교통상황에서는 직업적으로 택시운전을 하는 경우 소극적인 행동을 할 때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 Type    ◆ : Age    ▲ : Career    ● : Accident

**Fig. 3-3 Dispersion of drivers by Quantification Method II**

#### 4. 결론 및 고찰

이상의 성격특성론에 근거하여 학생집단과 일반인집단 그리고 운전자집단의 성격특성을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집단과 일반인집단 그리고 운전자집단 모두 나이가 성격특성 Type A/B 구분 기준과 가장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생집단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Type A 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Type B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었고 고학년일수록 더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일반인집단의 경우에는, 사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Type A 그리고 사고경험이 없는 사람은 Type B로 구분되어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운전자 집단의 경우는 기존의 연구와 달랐는데 이는 택시운전종사자의 특성이었거나 또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론에 의해 각 집단을 다시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추후 산업현장에서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나 안전교육을 행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Friedman, M., and Rosenman, R., *Type A Behavior and Your Heart*, Greenwich, Inc., 1974.
- [2] Hayashi C., "On the Quantification of Qualification Data from the Mathematics - Statistical Point of View", *Ann. Inst. Statist. Math.* Vol.2, pp.35-37, 1954.
- [3] Matthews, K.A.,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Type A Behavior Pattern", *Psychological Bulletin*, Vol.91, No.2, pp.293-322, 1982.
- [4] Baron, R.A, Phychology, Allyn and Bacon, Inc., pp.81-90, 1988.
- [5] 山崎勝之, 田中雄治, 宮田洋, "日本版成人用タイプA質問紙 (KG式 日常生活質問紙) ; 標準化の過程と実施・採点方法", タイプA, Vol.3, No.1 pp.33-45, 1992.
- [6] 장일기, 인지양식과 성격유형에 근거한 안전행동 특성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